



세계를 보는 어항인이 많아져야 한다

≡ 이 요즈음을 디지털 시대라고 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신기술은 또 다른 신기술과 서로 접목하고 융합하면서 진화를 계속한다. 따라서 앞으로 닥칠 내일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보의 축적이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어항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어항산업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급변하고 있는 세계적 어항 환경과 트렌드에 소홀해 서는 안되는 측면이 너무 많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 어항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는 일일 것이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된 제16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은 계량적인 성과의 유무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했을 때 그 의미가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두 35명이 참가한 이번 조사단은 우리와 환경이 매우 유사한 일본 후쿠오카의 3개 어항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어항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동서양을 망라한 어항 환경과 세계적인 어항산업 현황을 조망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양했다.

협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매년 한차례씩 진행하던 이같은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을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어항산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안목도 넓힘과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외교까지 한몫 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다.

불특정 무작위로 연습하는 태풍이나 각종 재난을 이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촌어항의 관리와 이를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어항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런 현장을 많이 보고 체험해 보아야만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의 설득력과 당위성을 갖게 한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어촌어항관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번 조사단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다의 다각도 이용이란 측면이 침체일로도를 걷는 수산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주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이 바다에서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바다에서 나온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들이 노리는 것은 에너지 자원과 수송로 확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수산업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바다 개척의 의미가 주요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우리도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넓은 의미의 투자이다.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나라 어촌어항 발전의 기회도 더욱 넓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자.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단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자료화하는 작업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체험일지라도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투자에 대한 성과가 너무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어항인 모두는 세계를 보고, 세계로 나가야 할 때이다. (어촌어항소식)

